



한-칠레 FTA 발효 후 3년의 무역성과 및 전망

1. 대 칠레 무역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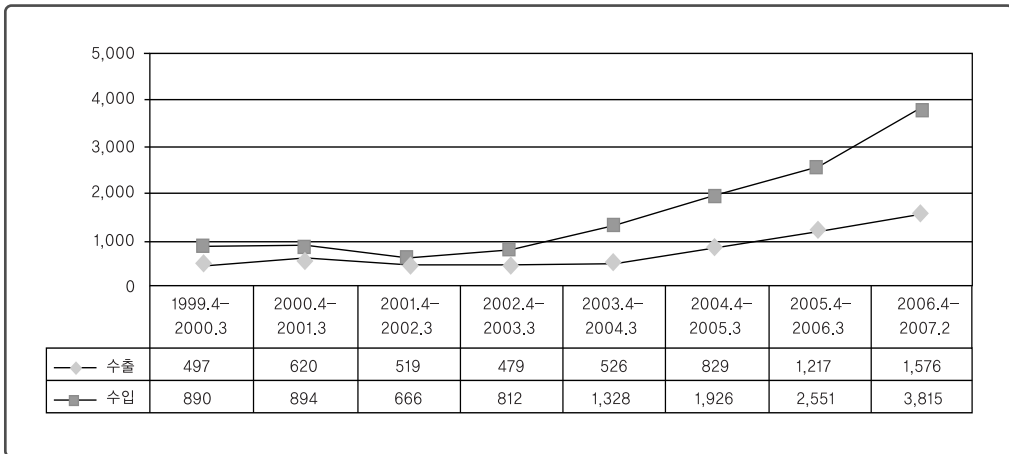
-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직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음.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을 기준으로 발효 후 1년 동안의 수출액은 8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발효 1년 전의 5억 2,600만 달러에 비해 57.6%가 증가하였으며, 발효 후 2년, 3년차의 수출액은 각각 12억 1,700만 달러, 15억 7,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46.8%, 29.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FTA 발효 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효 후 3년간 수출액의 총 증가율은 199.6%에 달하였음.
- 대 칠레 수입의 경우 발효 후 1년 동안의 수입액은 19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발효 전 1년의 13억 2,800만 달러에 비해 45%가 증가하였으며, 발효 후 2년, 3년차의 수입액은 각각 25억 5,100만 달러와 38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2.5% 및 49.5%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FTA 발효 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효 후 3년간 수입액의 총 증가율은 187.3%에 달하였음.



<그림 1>

대 칠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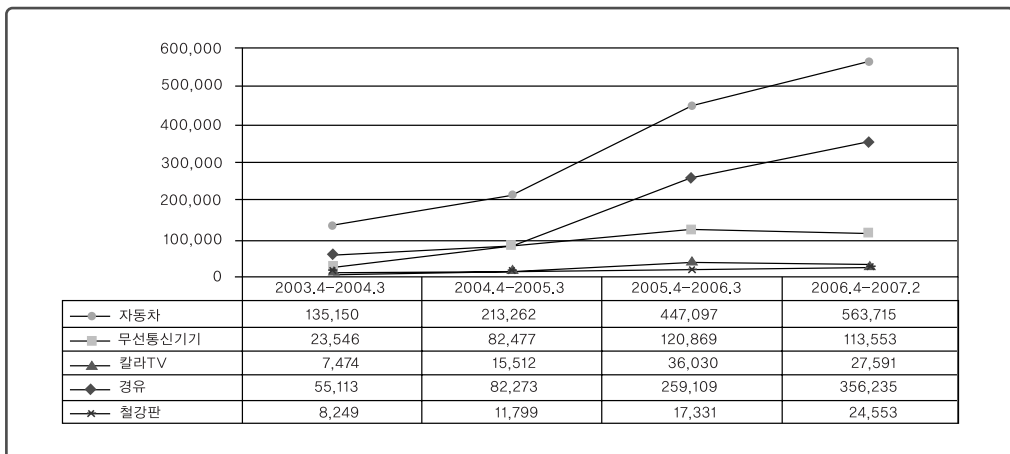
2. 대 칠레 수출현황

□ 관세철폐품목의 수출증가

<그림 2>

대 칠레 주요품목의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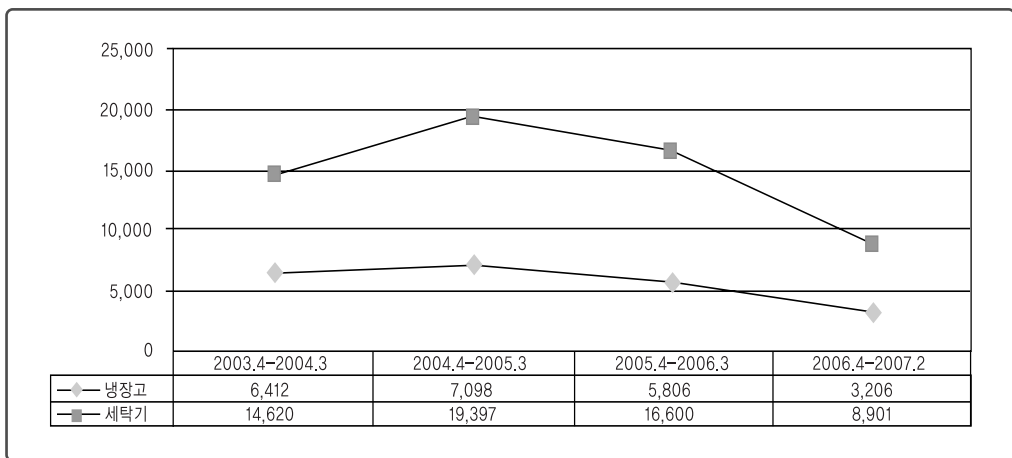


- 대 칠레 수출을 주요품목별로 살펴보면, 관세철폐품목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양허제외 품목의 경우 수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관세 즉시철폐 품목이었던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TV의 경우 FTA 발효 후 3년간 수출이 각각 317%, 382%, 269%가 증가하였으며, 5년에서 1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및 철강판은 FTA 발효 후 3년간 수출이 각각 546%, 197%가 증가하였음.

<그림 3>

대 칠레 수출현황(양허제외품목)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 반면, 양허제외품목이었던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에는 FTA 발효 전에 비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냉장고는 FTA 발효 1년 전 수출액은 6,400만 달러였으나 FTA 발효 3년 후에는 3,200만 달러로 수출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세탁기도 FTA 발효 1년 전 1억 4,600만 달러 수출에서 3년 후 8,900만 달러로 39%가 감소하였음.

□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증가

- 대 칠레 수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칠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한편, 칠레의 수입대상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음. 한국이 칠레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1%에서 2006년 4.7%로 확대되어 한국은 칠레의 제5위 수입국 위치를 차지하였음.



<표 1>

칠레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 국	2,842	176	2,520	163	2,507	144	3,378	151	4,711	158	5,594	160
아르헨티나	3,055	189	3,056	198	3,766	217	4,147	185	4,807	161	4,508	129
브 라 질	1,491	92	1,613	104	2,021	116	2,778	124	3,777	127	4,240	121
중 국	1,053	65	1,171	7.6	1,367	7.9	1,919	8.6	2,541	8.5	3,601	103
한 국	539	3.3	438	2.8	540	3.1	697	3.1	1,076	3.6	1,642	4.7
페 루	285	1.8	252	1.6	420	2.4	694	3.1	1,107	3.7	1,427	4.1
일 본	549	3.4	535	3.5	635	3.7	798	3.6	1,017	3.4	1,148	3.3
기 타	6,337	392	5,888	381	6,107	352	7,951	356	10,799	362	12,754	365
전 체	16,151	100	15,472	100	17,364	100	22,361	100	29,836	100	34,914	100

자료: 칠레관세청.

□ 한·중·일 3국의 대 칠레 수출액 비교

- 한·중·일 3국의 대 칠레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점 중국의 수출액이 증가하면서 한국, 일본과 격차를 넓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6년 중국의 대 칠레 수출액은 2003년의 13.7억 달러에 비교하여 164%가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칠레 전체수입의 10.3%를 기록하여 제4위를 기록하였음. 일본의 경우 2006년 수출액은 2003년의 6.3억 달러에서 81%가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완만한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2003년까지 대 칠레 수출액이 5억 달러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보였으나, FTA가 발효된 2004년부터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수출액은 2003년의 5.4억 달러에서 204%가 증가한 1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¹⁾.
- 그러나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중국의 수출증가율을 앞섭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액과는 약 20억 달러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11월 칠레와 중국간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 격차는 향후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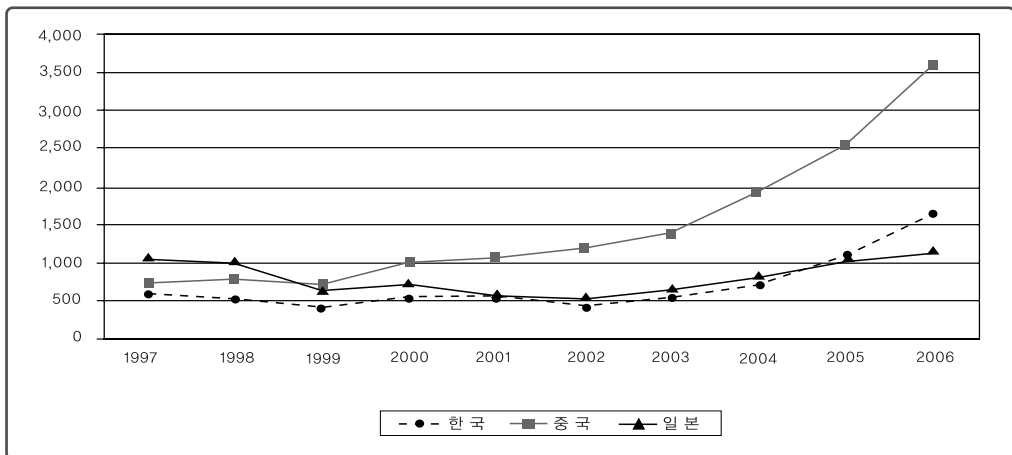
1) 한-칠레 FTA 발효 시점인 200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계된 FTA 발효 3년 후(2006.4~2007.2)의 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2006년 1~12월 기간의 수출액 16.4억 달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4>

한·중·일 대 칠레 수출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칠레관세청.

3. 대 칠레 수입현황

□ 품목별 수입현황

- 한국의 대 칠레 수입의 대부분이 동제품 등 원자재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FTA 발효 3년 후의 수입액은 38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2006년 국제 동 가격이 톤당 6,731달러로 전년도 3,677달러에서 83%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실제로 한국의 대 칠레 주요 수입품목인 동괴의 경우 수입 물량은 2005년 2,385억 톤에서 2,466억 톤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금액은 8.7억 달러에서 16.2억 달러로 거의 2배가 증가하였음. 동광의 경우에도 2005년 수입물량은 5,860억 톤에서 5,955억 톤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입금액은 6.6억 달러에서 13.7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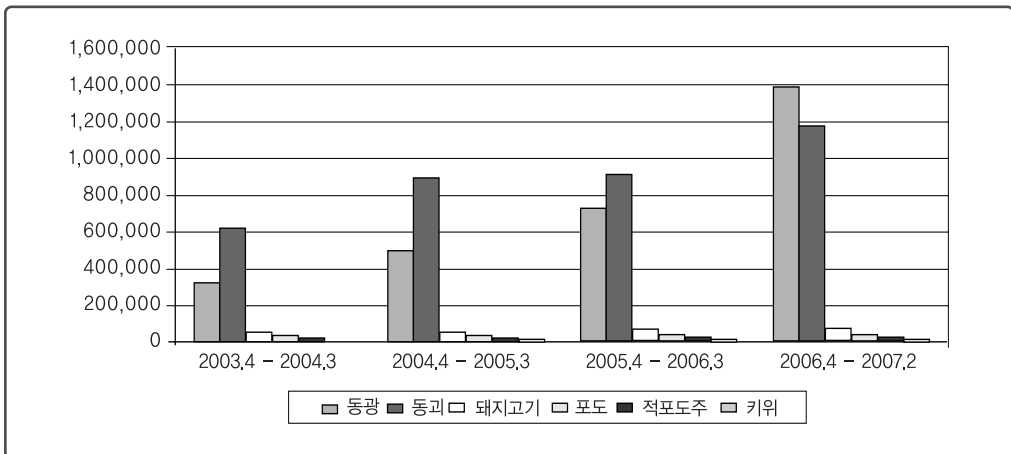
2) 자료: 산업자원부.



<그림 5>

대 칠레 주요품목의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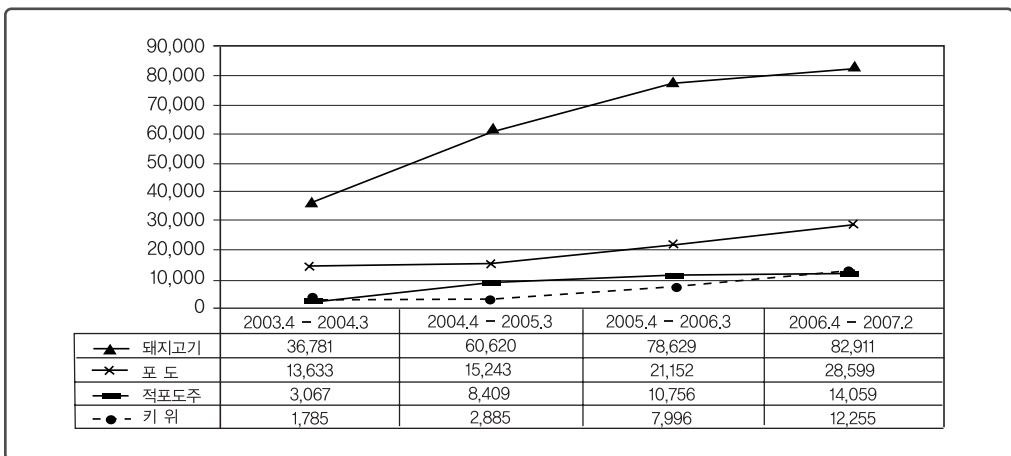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 동제품을 제외한 주요 수입품목의 경우, 광우병 우려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포도 및 포도주, 키위 등이 꾸준한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대 칠레 주요품목의 수입현황(동제품 제외)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 칠레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증가

- 대 칠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칠레의 수출대상국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커지고 있음. 한국이 칠레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0%에서 2006년 6.2%로 확대되어 한국은 칠레의 제5위 수출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칠레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 국	3,216	183	3,483	200	3,467	173	4,569	148	6,238	162	9,250	161
일 본	2,167	123	1,928	11.1	2,237	11.1	3,697	120	4,527	11.7	6,334	11.0
중 국	1,076	6.1	1,271	7.3	1,928	9.6	3,344	108	4,386	11.4	5,213	9.0
네덜란드	544	3.1	534	3.1	769	3.8	1,654	5.4	2,301	6.0	3,939	6.8
한 국	578	3.3	714	4.1	1,014	5.0	1,804	5.8	2,207	5.7	3,546	6.2
이탈리아	815	4.6	856	4.9	905	4.5	1,339	4.3	1,658	4.3	2,917	5.1
프 랑 스	618	3.5	631	3.6	733	3.6	1,286	4.2	1,387	3.6	2,480	4.3
멕 시 코	832	4.7	909	5.2	921	4.6	1,307	4.2	1,578	4.1	2,293	4.0
기 타	7,770	44.1	7,093	40.7	8,112	40.4	11,894	38.5	14,257	37.0	21,654	37.6
전 체	17,616	100	17,420	100	20,086	100	30,895	100	38,540	100	57,626	100

자료: 칠레관세청.

□ 한 · 중 · 일 3국의 대 칠레 수입액 비교

- 한 · 중 · 일 3국의 대 칠레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 일본의 수출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약 10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점차 중국의 대 칠레 수입액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일본의 수입량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6년 일본 및 중국의 대 칠레 수입액은 각각 63억 달러, 52억 달러로, 2003년의 22억 달러, 19억 달러에 비교하여 각각 183%, 170%가 증가하였음. 반면, 한국은 2003년까지 대 칠레 수입액이 줄곧 10억 달러 미만 수준에 머물렀으나, FTA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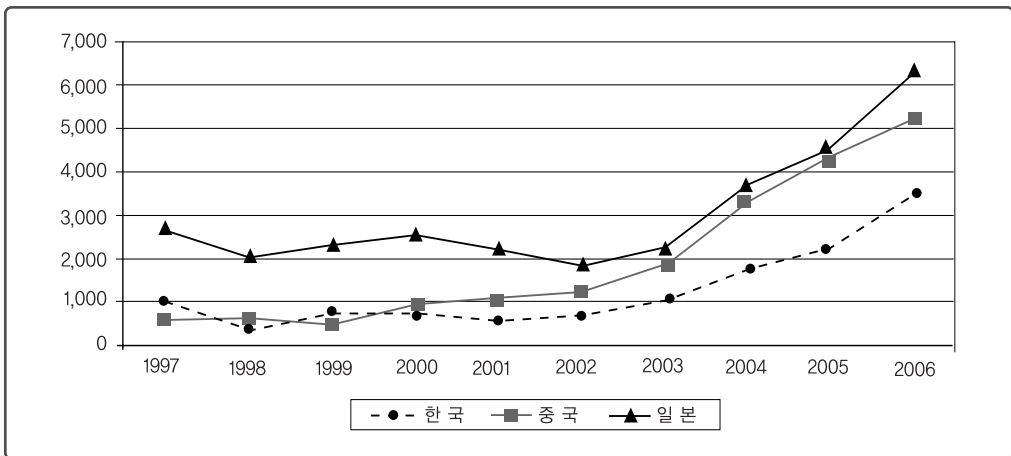
발효된 2004년부터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수입액은 2003년 대비 250%가 증가한 35.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³⁾.

- 한국의 수입증가율은 일본 및 중국의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입액은 약 10억~20억 달러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그림 7>

한·중·일 대 칠레 수입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칠레관세청.

4. 대 칠레 상품수지 현황 및 전망

□ 원자재 수입 증가로 대 칠레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 한국의 대 칠레 상품수지는 FTA 발효 이전인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되어왔음. FTA 발효 1년 전의 대 칠레 상품수지는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효 2년 전의 3.3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에서 142%가 확대된 수치임. 반면, FTA 발효 3년 후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2.5억 달러를 기록하여 발효

3) 한-칠레 FTA 발효 시점인 200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계된 FTA 발효 3년 후 (2006.4~2007.2)의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2006년 1~12월 기간의 수입액 35.5억 달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1년 전과 비교하여 연평균 약 40%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2006년 상품수지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적자 22.5억 달러 중에서 원자재의 경우 동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자본재 및 소비재는 오히려 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폭 변동 전망

- 한-칠레 FTA 협정에 따른 단계적 관세철폐품목들의 관세 철폐효과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한-칠레 간 무역규모는 수출 및 수입이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대 칠레 상품수지의 경우 적자의 대부분이 동제품 등 주로 원자재 수입에 기인함에 따라, 향후 대 칠레 상품수지 적자폭은 국제 동 가격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양 행 민】